

2018년 6월 23일 “(성경의 큰 숲 보기 16) 에스라-느헤미야: 성전과 신앙의 재건”(느 8:1-12)

<도입>

포로생활 70년 후 1차 귀환자들(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BC516), 2차로 에스라, 3차로는 느헤미야를 리더로 귀환해서 성벽 쌓기를 끝냅니다(BC445). 그리고 나서 신앙의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70년 공백을 지낸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정통성과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메시지

고대 문헌에는 두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스라-느헤미야'는 포로기 후 쓰여진 시리즈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하 36:23 는 스 1:1 로 이어짐) 두 책의 구조:

- (1) 스 1:1~6:22 성전 재건(스룹바벨)
- (2) 스 7:1~10:44 에스라의 개혁
- (3) 느 1:1~7:73 성벽 재건
- (4) 느 8:1~13:31 언약의 갱신과 말씀의 부흥 그리고 침체

포로시기에 이스라엘은 열심히 성경 문헌을 수집하고 형성하는 작업을 했습니다(예: 열왕기 상하, 시편). 무엇보다 말씀에 열심을 냈을까요? 포로생활 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예레미야의 약속을 믿었고, 그 때엔 언약을 계승하는 삶을 회복하는 최선의 길이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재건 후에는 에스라가 리더로 세워집니다(7:10-12 에스라 소개). 이제 그는 공동체에 새롭게 역사할 말씀 사역을 열어갈 때를 맞았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사역에 투입될 레위인들(동역자들)도 찾아냈고, 희생제사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8 장). 그런데 지도자들로부터 아찔한 소식을 접합니다. 앞서 귀환했던 리더들과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너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9:1-2).

이 말에 놀라 그는 사역을 멈추고 회개기도를 드립니다(9:6-15). 그의 회개에 무리들이 함께 슬퍼하며 이방인과의 혼인을 되돌리겠다고 결단합니다. 먼저 여러 달 동안 이방인과 결혼 관계를 조사해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10:18~).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말씀 사역은 시작도 못한 채 에스라서는 여기서 끝납니다(10 장).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고관으로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고생이 심하다는 고국소식을 듣고, 왕의 도움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후, 12년간 성벽/성문 재건(3 장)과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애쓰게 됩니다. 방해세력들을 물리치고(4 장), 가난한 이들에게 고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5 장), 음모로부터 자신을 지키고(6 장), 지도자들을 세움으로써(7 장) 비로소 공동체는 안정기에 들어갔습니다.

[2] 말씀의 부흥과 공동체의 즐거움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말씀 성회를 주관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고 또 리더들이 통역/해석 할 때,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리더들은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감동받고 회개하며 울고 절규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 감정의 비약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가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10 절 참고).

8:12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백성들은 다음 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 때 마침 초막절기이므로 에스라는 텐트를 치고 지내기 위해 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7박 8일간 매일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8:17-18).

백성들은 이러한 회개와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새로워집니다. 그 달(24 일)그들은 다시 모여 금식/자백/경배하며 긴 기도를 드립니다(9:5~37). 그리고 하나님 언약이 갱신되었고 언약서에 서명했습니다(10 장). 이제 영적, 물리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느헤미야의 12 년 사역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3] 영적 부흥 후 영적 혼돈을 어떻게?

느헤미야는 12 년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복귀했습니다(13:6). 그런데 씁쓸한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영적 혼돈이 곱팡이 번지듯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적자 도비야와 결탁하여 성전에 살 방을 주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부정과 의무불이행으로 임금을 못 받고 있었고,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장사가 성행했습니다(15 절). 이방인과 혼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각 문제들에 대응하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13:22, 31).

안타까운 현실은 잘 되게 하려고 애썼는데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입니다. 특히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위해 애쓸 때 그렇습니다(예: 의사, 교육자, 상담가, 목양자, 부모...). 어떤 영적 태도를 취해야 할 지 혼동스러울 때, 느헤미야의 기도와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책을 읽다 보면 공동체의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하기 보다 분별력 있는 바른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느헤미야로부터 배우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한 후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냉담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너그러이 보아주시기만을 구했고, 합당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복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소명을 행한 후에 주님께 미래를 의탁하며, 자신이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영광과 축복임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맺음>

어떤 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마지막 터치에 완료됩니다. 주님은 합당한 행위를 기억하시며 복을 내리십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고 미래와 결과를 주님께 토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염려와 집착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며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복된 소망의 힘을 얻는 길입니다.

<나눔의 질문>

1.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굴곡의 과정을 지날 때에 기대치 못한 새로운 도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2. 최선을 다할 때와 그 일을 마친 후에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을지, 위의 느헤미야 경우를 참고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힘을 쏟는 일이 있다면 어떤 변화된 태도로 임하겠습니까?